

정의당은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 개량인가, 혁명인가 독후감

멘봉박사

드디어 로자 룩셈부르크의 사회 개혁인가, 혁명인가를 다 읽었다.

일단, 첫 번째로 글은 더럽게 재미가 없다. 진짜 3일 안에 다 읽으려고 노력했는데 피를 토하는 듯이 재미가 없고, 내용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

우선 글 자체가 그 시대적 상황을 예시로 한 줄로 치고 넘어가는 면이 강하며, (예를 들어, 한국의 강한 반공정서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원인을 6.25 때문이다. 한 줄로 넘어가지만 정작 독자가 6.25를 모르면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강하다.) 독일인의 특유의 노잼 개그와 비유를 보면, 머리를 탁 치고 책을 덮게 된다.

하지만 3만원을 향한 자본주의적 욕구는 나에게 다시 책을 피게 하며, 책을 다 읽고 느낀 점에 대해 말해보려고 한다.

이 책은 근본적으로 베른슈타인 비판책이다. 정말 1페이지도 안빠뜨리고 베른슈타인 사상에 대해 비판한다. 마치 요즘 자유페미니즘에 관한 책을 가지고 이론적, 현실적 비판을 책으로 낸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와 유사해 보이는 측면이 강하다. 물론 우리가 넷상에서 말도 안되는 거로 꼬투리 잡고, 인신 모독적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않는다. 오히려 더 무섭게, 이론의 현실과 불합치와 이론의 논리적 자가당착, 근거의 부정확한 인용을 날카롭게 꼬집으며 엄청나게 같군다. 보는 내가 베른슈타인을 응원할 지경이다.

그럼 여기서 우월한 독일 언냐의 일간 베른슈타인 통칭 일베에 대한 비판은 무언인가? 그것은 사회 개혁, 즉 사회민주주의가 정말 현실성 있는 대안인가이다.

베른슈타인은 신용, 카르텔, 중산층으로 인해 자본주의는 무너지지 않으며, 오히려 현실에 “적응”해나가고 있으며, 노동자에 권익 보호를 위해 현실 정치에 참여해야 하며, 노동조합과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주의로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의 예언과 달리 절대로 멸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강한 적응력을 띄고, 무산계층과 자본가로 양분되지 않고 중산층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현실 정치에서의 사회민주주의를 토대로 중산층을 확대하며, 자본가와 무산계층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이론이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우리가 자주 언론에서 접하는 정의당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성장과 같은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 로자 언냐, 그런 일베의 개소리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바로 팩트체크 들어간다.

우선 신용과 카르텔은 자본주의의 영속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속한다. 신용은 자본가의 재산 이상의 모험을 통해 무분별한 자본 확산을 촉진하며, 카르텔은 소비자와 자본가의 계급갈등을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성을 심화시킨다.

또한 중산층의 확산도 이는 초기 자본주의의 성향 때문이라고 말한다. 베른슈타인은 그 당시 자본주의를 자본주의 말기로 판단했고, 마르크스가 말한 공황이나, 급격한 계급분화가 나타나지 않음을 꼬집는다. 그러나 우리 현명한 독일 언냐 로자는 그 당시 자본주의를 초기 자본주의라고 꼬집는다. 즉 이익률, 착취율이 많이 남기 때문에 노동자 계층에게 때어줘도 남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고, 자본이 모든 시장을 장악할 무렵에는 이러한 이득율은 급격히 떨어지며, 결국 마르크스가 예언한대로 대공황과 사회주의적 혁명이 필연적일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상당히 정확한 예측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신자유주의적 열풍을 생각해보면 그렇다. 신자유주의는 사회민주주의를 대체해서 들어왔으며, 그에 대한 경제적인 이유는 사회민주주의가 더이상 경제성장을, 즉 자본의 이익률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의 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가 크게 고개를 못 드는 이유도 이에 따르면 설명이 된다. 더이상 그들을 위한 밥그릇은 없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도 강하게 비판한다. 경제민주화 즉 주주 민주주의는 결국 자본가들의 손을 들어주는 멍청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베른슈타인은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자본가는 기업의 유지 못 하는 관리인적 위치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그러나 우리 로자 누님은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단호히 거부하며, 해안 있는 식견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자본가는 기업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손을 떼버린다. 오직 기업을 소유할 뿐이다. 기업은 끊임없이 이윤을 창출할 것이며, 기업의 운영과 관리조차 한낱 무산계급으로 추락해버린다. 즉, 경제민주화는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자본주의를 강화한다. 또한 일베는 많은 소규모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사회주의의 변혁의 증거로 든다. 그러나 로자께서는 이는 자본이 사람이 아닌 자본 그 자체가 되고 있음을 꼬집는다. 즉 투자회사나 은행이 자본가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냉철하게 지적한다.

또한 노동조합과 노동법에 따라 사회를 개혁하여, 자본가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는 것조차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노동가치가 추가됨에 따라 기업은 이윤을 얻는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분야의 이익률은 끊임없이 하락한다. 결국 분야의 노동조합은 자본 기업화 한다. 즉, 시장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조합이 조합소속 노동자를 착취할 수 밖에 없다.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연맹과의 연대뿐이지만 이는 봉건적 행위로 돌아갈 뿐인 어리석은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가속화한다는 일베의 주장을 일축한다. 민주주의는 결국 자본가의 허락을 받은 민주주의일 뿐이다. 더이상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자본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단호히 버릴 것이다. 그리고 대안을 찾아 기생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현실에서 잘 보고 있다. 사우디의 경우, 그 누구보다도 신정일치국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자본주의 국가이다. 중국은 현재 국가자본주의 국가에 가깝다. 바디우가 지적한대로 시리아, 콩고, 이라크 소말리아 등, 현재 국가가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 또한 그 어디보다 자본주의 정신에 따라 굴러간다. 반군과 정부군 모두 산유시설과 광산을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 과연 정의당에서 하는 의회적 사회민주주의가 정말로 사회 변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로자의 말대로 이는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어리석은 행위에 불과한 것인가?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민주주의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 책은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 책은 그 말대로 베른슈타인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책이지 베른슈타인이 잘못했으니 어떻게 해야한다고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의 정의당의 사회민주주의로는 사회주의를 이룩할 수 없어 보임은 분명하다. 사회민주주의의 2차적 개량인가, 세계혁명인가? 이것에 대해 토론하고 이에 관한 다른 책을 읽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공부라 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 독후감을 마치고자 한다.